

성장과정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만드는 장난감을 시작으로 시계, 게임패드, 카세트, 휴대폰 등 많은 것을 만들고 분해하고 고쳐보고 망가뜨리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건축공학과에 들어갔지만 수학적인 분석은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코드를 받아 연구하여 저만의 코드를 만들어보고 책을 찾아 공부했습니다.

좌우명/생활신조

안되면 될 때까지, 내 실력이 될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가끔은 고지식하도록 제 생각을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제 생각의 방향을 늘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저의 장점과 단점은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것을 항상 즐거워하며 그것에 빠지고 공부합니다. 틀렸다면 깊게 공부하려 하며 제가 이해할 때까지 분석합니다. 맞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풀이를 보며 분석하기도 합니다. 답을 맞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공부하고 찾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공부나 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남의 일에 너무나 깊게 파고들려 하며 그러한 호기심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능력/특기

저는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정답을 찾아냅니다. 분석하며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 쉽게 알아냅니다. 이러한 사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경험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던 저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처음 배우는 언어들하면서도 영어에 약한 저였기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한가지를 배우면 그것으로 생각나는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쉽게 이해하였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을 하면서도 그것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바꾸고 다른 학생들이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각종 작업을 하며 다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API나 모듈 등을 가져다 코드를 작성하여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고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느끼는 만큼 더 공부하며 도전하여 제가 맡은 위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